



■ 사료용 옥수수의 비료 주는 양

- 옥수수는 다비성 작물로 거름을 많이 주면 증수되는 경향이 있으나 비료 성분이 과다하면 작물이 흡수하고 남는 비료분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적정량을 시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기준 시비량은 ha당 퇴비 30톤, 질소 200kg, 인산과 칼리비료 각각 150kg이나 옥수수가 재배될 포장의 비옥도에 따라서 시비량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 퇴비는 먼저 밭에 뿌린 후 경운하고, 질소는 시용량의 50%, 인산과 칼리는 전량을 기비로 시용한다.(밑거름으로 복합비료 21-17-17를 사용할 경우 ha당 23포대 시용)
- 추비(웃거름)는 질소질 비료(요소)를 ha당 11포대 시용하면 된다.

■ 추비(웃거름) 주는 시기

- (인력으로 시비) 초장이 40~50cm 자라고 본엽이 7~8매(사람의 무릎 높이) 정도일 때 포기로부터 10~15cm 정도 떨어진 곳에 시용하고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트랙터로 시비) 트랙터 부착용 비료살포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기보다 조금 빠르게 본엽 5~6매 정도일 때 시비해야 기계작업으로 옥수수 식물체가 부러지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추비(웃거름) 시용 효과

- 중부지역에서 사료용 옥수수의 재배 시 파종 시기와 상관없이 질소비료를 전량 기비 시용보다 기비와 추비로 반반씩 나누어 시용해야 옥수수 수량이 증가한다.
- 추비를 생략하면 후기에 질소 결핍의 우려가 있고, 결핍되면 수확기에 하엽의 고사가 빨라져 결국은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

〈 사일리지용 옥수수 재배 시 알맞은 시비량 (kg/ha) 〉

기비(파종할 때)				추비(본엽 6~7매)
질소	인산	칼리	퇴비	질소
100 (요소 220)	150 (용인 또는 용과린 750)	150 (염화칼리 250)	20,000이상	100 (요소 220)